

NEWS LETTER

2021년 11월 29일 Vol. 424

이비인후과 김보해 교수, 2021 ‘대한연하장애학회 신진과학자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김보해 교수가 2021 대한연하장애학회 제12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진과학자상’을 수상했다.

‘대한연하장애학회 신진과학자상’은 연하장애 분야 학문 발전에 지속적인 공헌이 기대되는 역량 있는 연구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김보해 교수는 연세대치과대학 김희진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보툴리눔 독소 주입을 위한 윤상인두 근육 내 신경분포 분석’을 주제로 신진과학자상을 수상했다.

김보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윤상인두 이완부전 환자 치료 시 합병증 비율 최소화과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보툴리눔 독소를 근육 내 주입 시 부작용 없이 효과적인 시행할 수 있는 위치를 확인했다. 이는 향후 시술에 대한 표준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의료진을 위한 연잎밥 도시락 전달

서울 은평구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에서 지난 11월 18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위한 연잎밥 도시락 200개를 전달했다.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現 동국대학교 이사)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진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방문하게 됐다”며 “마음과 정성으로 만든 사찰음식이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잘 전달돼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은 “불교계의 큰 관심과 건강한 사찰 도시락으로 더욱 힘을 내 지역민의 건강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심행 불자, 동국대일산병원 발전기금 1억원 쾌척

팔순의 노보살 김순재(법명 정심행) 불자가 지난 11월 23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거액의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정심행 보살은 “해주 스님의 권선으로 약사도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기부하고 싶었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부 뜻을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해주 스님(前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명예교수)은 “정심행 보살과는 오랜 인연으로 원력이 통했다”며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진과 직원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교계종립병원으로써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병원 발전을 위한 염원으로 기부해 주신 스님과 정심행 불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주신 소중한 정재는 생명 가치실현과 병원 발전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의 불자, 병원발전기금 3,500만원 기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불자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발전기금을 후원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 불자는 지난 11월 12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3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익명의 불자가 기부 담당 부서에 연락해 오면서 이뤄졌다. 기부자는 어떤 정보도 전달하고 싶지 않고,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기부 의사를 뜻을 전했다.

이번 후원은 익명의 기부자가 병원 기부담당 부서에 연락해 오면서 이뤄졌다. 후원자는 어떤 정보도 전달하고 싶지 않고,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하며, 다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의료포교의 중심도량이 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 병원은 익명의 기부자에게 감사인사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은 “무주상보시를 몸소 실천하며 병원을 위해 마음을 내어준 익명의 기부자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며 “기부자 뜻을 존중해 소중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